

인문대학 소식지

2021년 제2호 (통권 27호)

인문대학 행정실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 062)530-3114 | 발행인_표인주 기획_민진영 편집_김혜미 | <http://human.jnu.ac.kr>

칼럼

칠엽수야, 안녕

세상에 나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 당연히 나도 나무를 좋아한다. 아왕이면 오랜 기간 함께 했던 나무에 관심이 더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리라. 예를 들자면, 인문대학 1호관 앞의 여덟 형제 소나무, 3호관 입구의 벼락을 이겨낸 히말라야시다를 비롯하여, 그늘이 넉넉한 등나무, 둥근 벤치를 두른 칠엽수, 이름처럼 우뚝한 태산목, 자태 고운 매화, 향기 그윽한 금목서, 주렁주렁 과일나무들, 울망졸망 검정 대나무, 붉은 열정의 동백나무, 눈부신 순백의 목련 등등, 우리 대학 여기저기에 자리한 나무들이 바로 그러하다. 사실 천천히 보면 어디 사랑스럽지 않은 나무가 있을까? 2호관 건물 뒤 주차장 한 가장자리에 건성으로 심어놓은 무궁화도 내 눈에는 아름답다. 정원수다운 대접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해마다 싹둑 잘리는 수모를 겪고 있는 점이 못내 아쉽지만, 나는 그 외중에도 곳곳함을 잃지 않는 '무궁함'을 존경하고 또 닮고 싶다.

하지만 누군가가 굳이 하나를 특정 하라고 한다면 나는 크게 주저하지 않고 둥근 벤치를 두른 칠엽수를 꼽을 것이다. 우리 대학 세 건물의 교차점이자 전체 캠퍼스의 주된 통행로에 자리 잡고 있어, 그 둥근 벤치가 오가는 이들의 작은 쉼터이자 만남의 장소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점이 우선 좋다. 일곱 개의 작은 잎(小葉)이 하나의 큰 잎(大葉)을 이루기에 칠엽수(七葉樹)라고 부르는데, 서울 동숭동 문리대학의 상징이었던 마로니에와는 친척 관계이다. 그러기에 마로니에를 서양칠엽수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칠엽수를 동양마로니에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다. '일곱'이면서 '하나'인 칠엽수의 특성에서 나는 강한 상징적 의미를 되새기기 때문이다. 장자(莊子) 응제왕(應帝王) 편의 혼돈(混沌) 우화를 떠올리는 것이다. 혼돈은 중앙의 신으로, 달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일곱 개 구멍으로 이루어진 얼굴의 감각기관들을 달고서 하나의 '통감각'으로 만물을 원융(圓融)하게 포용한다. 그런데 어느 날 '설쳐대기를 좋아하는' 남과 북의 두 신이 하루 한 개씩 일곱 개의 구멍, 즉 칠구(七竅)를 뚫어준다. 바로 그 일곱째 날 혼돈은 죽고 만다. 대신 '이원 대립적'인 두 신만이 살판이 났다. '일곱'이면서 '하나'인 칠엽수의 잎을 보며 장자에게 늘 묻고 싶다. "혼돈의 죽음은 인류문명의 시작인가? '황금시기'의 상실인가?" 여전히 풀어야 할 나의 인문학적 화두일 터이지만, 우선은 하나면서 둘로 갈라진 한반도가 연상되어 가슴이 아프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원론적 대립의 온상(溫床)이기 때문이다.

이 칠엽수는 민속학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원로 교수가 80년대 초 자신의 마당에서 이곳으로 옮겨 심은 것이다. 이 나무는 나로 하여금 평생 학문에 정진하였던 한 인문학 학자를 추억하게 한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우리 대학에 온 시점이 나의 부임과 일치하기에 더욱 친근감이 더한다. 말하자면 칠엽수와



양 회 석

중어중문학과 교수

나는 입사 동기인 셈이다. 물론 애초부터 이 칠엽수를 의식하였던 것은 아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이 나무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동반자로 삼고 있었다. '일곱'이면서 '하나'인 잎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새 학년도 첫 수업을 준비하고, 그 잎이 지기 시작하면 일 년 수업을 마무리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에게 그것은 일종의 학년력(學年曆)이었다. 올해는 더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학기, 마지막 수업을 들어갈 때, 몇 장의 잎을 달랑대고 있었다. 마치 종강을 서두르라는 듯이, "고마워 알려줘서. 마무리 잘 하고 나올게."

맹자(孟子)의 호연지기(浩然之氣)와 장자의 봉정만리(鵬程萬里)를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나는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 구현을 축원하며 강의를 마무리 했다. 물론 칠엽수와 혼돈 우화도 곁들였다. 마음이 통했는지 학생들도 유달리 진지하였던 것 같다. 몇 학생이 수업 후 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희는 2학년인데요, 입학하여 처음으로 교수님 강의를 직접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면 강의를 고집했던 것이 잘 했다 싶다. 강의 평가를 통하여 수강생들이 남긴 글을 읽으며 나를 애썼다고 자위해본다. 말 그대로 시원섭섭하다.

"열성적으로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중 해주신 내용 모두 유익했고 뜻깊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에요." "교수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소인이 아닌 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득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교수님의 인생'이라니! 내 강의에서 나의 인생을 볼 수 있었다는데,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 걱정이 앞선다. 나의 주 전공은 중국고전문학이다. '중국'이란 공간, '고전'이라는 시간, '문학'이라는 영역에 갇힌 '전문 바보'로나 보이지 않았다면 천만 다행이겠다 싶다. '작은 잎'만 무성하고 '큰 잎'은 정작 없었던 것은 아닐까? 있었다면 그 큰 잎 '하나'는 무엇이었을까? 그 '하나'가 바로 '인문학'일 터인데, 나의 인문학은 무엇이이었을까?

일전에 어느 술자리에서 동료 교수가 물었다. "인문학의 정체성을 짧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임이 평소의 소회를 밝혔다. "인문학은 여느 학문과 다르지요. 왜냐하면 학문의 대상과 주체가 같기 때문입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인문학은 동서와 고금 그리고 문자철(文史哲) 등등, 아무리 나누고 쪼갤지라도 그 궁극은 '사람의 무늬(人文)', 즉 '사람다움'을 연구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바로 학문의 대상이자 입증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인문학의 위기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돌아다보아야 하는 이유이리라. 잎이 '일곱'이면서 '하나'인 칠엽수! 진정 네가 좋은 이유이다.

칠엽수야, 안녕! 이제 너를 떠나 나는 사회로 나간다. 교정 밖에도 너를 닮은 '나무'가 많이 있겠지? 아쉬움보다는 설렘이 앞선다. 너도 서운할 것 없다. 분명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학에 많을 터이니 말이다.

Contents

- 02 인문대학 증개축사업 경과보고
- 03-04 인문대학
- 04 교직원 동정
- 05 대학혁신지원사업

- 06 교직원동정
- 07-08 인사
- 09-12 학과
- 13-14 연구소

- 15-16 4단계 BK21교육연구단
- 17 학생
- 18-19 취업
- 20-21 신간도서

인문대학 2호관 증개축사업 경과보고



인문대학 2호관은 1978년 준공 이래 42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내진 보강(~2022년), 석면 교체(~2024년)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창호 교체(128개소) 및 내·외부의 채도장이 필요한 등 건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꾸준히 요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2018년) 판정으로 구조물 내구성과 안전 문제에 관하여 장기적인 유지 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인문대학은 적절한 시기에 기능과 효율이 개선된 시설, 설비 도입을 통하여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교육과 연구를 위한 적절한 공간 제공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인문대학 학장단(학장 표인주, 부학장 민진영)은 ‘인문대학 2호관 증개축 사업’을

기획하여 2022년 국고 시설 예산을 신청을 하였으며, **12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인문대학 2호관의 증개축사업 부지는, 교육부 신규 사업 선정 및 총 사업비 심의 당시 기존 부지에 개축하도록 선정을 하여 공간 활용도를 증대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설계 공모 단계 등을 거치며 변경될 부분은 많겠으나, 기본적인 공간 구성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4층 건물에서 6~7층 높이의 건물로 증축됩니다. 1층은 8개 학과 사무실, 2층은 행정실 등, 3층 이상부터는 교수 연구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수연구실은 기존 80실에서 78실로 2개실이 줄어들지만, 1인당 사용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교수 연구실 총 공간면적이 1,560㎡이었으나, 1,872㎡로 312㎡ 만큼 배당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존 2호관에 없었던 소회의실과 교수휴게실을 새롭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과 사무실 및 행정실 면적도 기존 공간보다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기본 공간 구성 계획으로 인문대학 2호관 증개축사업이 추진된다면, 학생 교육·연구를 위한 교수연구실 기준 면적을 추가로 제공하여 연구력을 증진과 시설 개선을 통해 환경 개선 및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면적(㎡)	총 사업비(백만원)	‘22년 예산액(백만원)
’22~’25	4,765	12,602	561

공간구성 계획

(단위 : 명, m)

층별	실명	수용인원	단위면적(A)	실수(B)	면적(A×B)	용도
지하층	기계·전기실					
1층	학과실		28	8	224	행정실
	학과자료실		20	8	160	전공 자료실
	취업지원실		40	1	40	행정실, 취업지원 상담
	환경관리원휴게실		20	2	40	남,여구분 샤워실 포함
	창고		30	1	30	물품보관
2층	학장실		60	1	60	행정실
	부속실		20	1	20	행정실
	부학장실		24	1	24	행정실
	행정실	5	77	1	77	행정실
	행정실장실		24	1	24	행정실
	교수회의실	70	100	1	100	회의실
	회의실(소)	20	50	1	50	회의실
	교수휴게실		50	1	50	교수 휴게 공간
	문서고		30	1	30	물품,문서보관
	학위복실		30	1	30	학위복 보관(환기설비 필요)
	교수연구실	1	24	78	1,872	연구실
3~6층	세미나실		24	8	192	강의, 세미나
	순면적 합계(1)				3,023	
	공유면적(2)				1,742	화장실, 기계실, 물탱크실, 계단, 복도, 로비, 전산EPS실, 방풍실 등
	합계(1+2)				4,765	

인문대학

김남주기념홀에 G-CONNECT 컨퍼런스룸 조성



김남주기념홀에 온라인 세미나 및 강의, 콘텐츠 제작 등이 가능한 G-CONNECT 컨퍼런스룸이 조성된다.

김남주기념홀은 개관 이후로 각종 학술회의, 강의 등을 빈번하게 개최하는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았다. 다만 코로나 이후 비대면 행사나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 하는 경우에 별도의 웹카메라와 음향 시스템 등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G-CONNECT 컨퍼런스룸 구축으로 김남주기념홀에는 멀티미디어 화상통화 시스템,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이는 대학원혁신지원비 약 2억원의 지원을 통해 이뤄지며 스튜디오 구축 계획 설계를 1월 완료, 2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남주기념홀이 대면/비대면뿐만 아니라 국내,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데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문대 1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인문대학(학장 표인주, 국어국문학과 교수)에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약 60일간, 본부 시설과의 지원(총 사업비 약 4억 2천)으로 인문대학 1호관 냉난방기 교체 설치 및 전기 승압공사를 진행했다.

냉난방기 실외기(전기히트펌프) 6대와 실내기 68대를 설치했으며, 전기 승압으로 인한 배전 선로교체 및 냉난방기 전기 공사가 이뤄졌다.

2015년 설치 이후 15년이 경과되어 빈번한 작동 중지가 발생하던 인문대학 1호관의 노후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함으로써 교수 및 연구자 등의 연구 공간 개선과 교양 및 전공강의실의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문대학 3호관 학생회실 및 강의실 출입문 교체

인문대학에서는 3호관 학생회실 및 동아리실 노후 출입문 교체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공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1호관	3호관		합계
	강의실	학생회실	동아리실	강의실
개수	2	8	4	13

인문대학 교수세미나 경비(15,000원) 및 긴급 보수 예산(7,000천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업 추진 예산을 확보했다. 수업 운영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2022년 개강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관한 선제적 대응과 동시에 학생 활동과 수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던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변경 전

변경 후

민주화 운동에 헌신, 송기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별세



소설 『녹두장군』, 『암태도』의 작가인 송기숙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가 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전남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두 차례 구속과 해직을 겪었다.

1978년 동료 교수들과 함께 유신정권의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한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한 일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돼 1년 넘게 옥고를 치렀다. 35년 만인 2013년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때 형사 보상금 등으로 받은 돈 전액을 전남대 대학발전기금으로 내놨다.

또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 학생수습위원회에서 활동한 이후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구속됐다가 1981년 석방됐다.

성진기 철학과 명예교수, 이달의 전남대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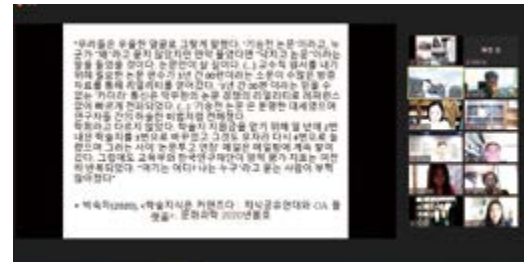


성진기 철학과 명예교수가 12월 30일 대학본부 접견실에서 ‘이달의 전남대인’으로 선정되어 표창받았다.

성진기 명예교수는 “정년퇴임 이후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력에 힘입어 지금도 ‘인문학 세일즈맨’을 자처하고 있다”며 “힘든 나이임에도 이렇듯 전남대가 나를 불러주니, 상을 받는 것보다 전남대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성진기 교수는 지금도 인문학카페 ‘필로소피아’를 열어, 지역민의 삶 속에 인문학을 심어주는 전령사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강좌, 강의, 집필 등으로 모교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 사회와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인문학 대중화 강좌〉 인문학의 지평탐색



주제	발표자	일시	ZOOM 회의주소
복고 트렌드와 포클로리즘(folklorism)	남근우 교수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10. 7.(목) 16:00~18:00	984 6460 6339
변형과 변용의 인공지능 인문학 - Humanities & Hu.Money.ties -	전승환 교수 (한남대학교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10. 21.(목) 16:00~18:00	951 2209 1898
인문학의 실천성: '공정' 담론의 경우	장은주 교수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11. 4.(목) 16:00~18:00	987 4298 4266
인문학의 현재와 지식공유	천정환 교수 (성균관대학교 인문대학)	11. 19.(금) 14:00~16:00	976 9403 2810

인문대학에서는 BK21 4단계 지역어문학 기반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단장 표인주, 국어국문학과 교수)과 공동 주관하여 2021년도 '인문학의 지평 탐색' 강좌를 개최했다.

인문학 교육 및 연구자 역량 강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본 행사는 인문학이 나아갈 방향성과 인문학적 성찰을 제공할 강사를 초청하여, 총 4회의 강좌를 개최했으며 2021년도에는 코로나 감염증 확산의 상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실시간 ZOOM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10월 7일 동국대학교 남근우 교수의 '복고트렌드와 포클로리즘'을 시작으로, 10월 21일 한남대학교 전승환 교수가 '변형과 변용의 인공지능 인문학', 11월 4일에는 영산대학교 장은주 교수가 '인문학의 실천성: '공정' 담론의 경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마지막으로 11월 19일 성균관대학교 천정환 교수가 '인문학의 현재와 지식공유'를 주제로 연구자들과 학술적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직원 동정

검 무

본부

- 사학과 교수 박상철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 (2021. 9. 1.~2022. 8. 31.)
-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해진
개교 70주년 기념사업행사추진(총괄)위원회 위원
(2021. 9. 17.~2022. 7. 31.)
- 사학과 부교수 강은영
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 (2021. 10. 1.~2023. 9. 30.)
인사위원회 위원 (2021. 10. 8.~2022. 10. 7.)
-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조재형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 (2021. 11. 1.~2022. 10. 31.)
- 일어일문학과 교수 김성은
교무부처장 (2021. 12. 13.~)
-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한정훈
개교70주년기념사업편찬위원회 위원 (2022. 2. 15.~2022. 7. 31.)

부속시설

-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조경순
언어교육원장 (2021. 9. 1.~2023. 8. 31.)
-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김성훈
언어교육원 기획부장 (2021. 10. 1.~2023. 9. 30.)
- 중어중문학과 교수 김태완
언어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 (2022. 2. 1.~2024. 1. 31.)

정년·명예퇴직 2022. 2. 28일자

- 국어국문학과 교수 손희하
- 중어중문학과 교수 양희석

신규 임용 2021. 9. 1일자

- 국어국문학과 한정훈 조교수
- 독일언어문학과 최정애 조교수

승진 2021. 9. 1일자

조교수 → 부교수

- 사학과 설배환
- 영어영문학과 이주리
- 일어일문학과 임지영

부교수 → 교수

- 사학과 이성원
- 영어영문학과 신근영

학과장 / 주임교수 / 연구소

독일언어문학과 교수 조자경
독일언어문학과 학과장 /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주임교수
(2021. 9. 1.~2023. 8. 31.)

철학과 교수 조윤희
대학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주임교수 (2021. 9. 1.~2023. 8. 31.)

국어국문학과 교수 장일구
한국어문학연구소 소장 (2021. 9. 1.~2023. 8. 31.)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이준환
대학원 한국어교육학협동과정 주임교수 (2021. 9. 1.~2023. 8. 31.)

일어일문학과 교수 김용의
대학원 아시아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2021. 9. 9.~2023. 9. 8.)
아시아문화연구소장 (2021. 9. 13.~2023. 9. 12.)

철학과 교수 정미라
철학과 학과장
대학원 철학과 주임교수 (2021. 9. 15. ~ 2023. 9. 14.)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임지영
일어일문학과 학과장 /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주임교수
(2022. 1. 1.~2023. 12. 31.)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이주리
영어영문학과 학과장 /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주임교수
(2022. 1. 1. ~ 2023. 12. 31.)

중어중문학과 교수 이주노
중어중문학과 학과장 /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주임교수
(2022. 1. 22.~2024. 1. 21.)

불어불문학과 부교수 민진영
대학원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 협동과정 겸임근무

인사



한 정 훈
국어국문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일부터 국어국문학과에서 근무하게 된 한정훈입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한 학기 동안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정겨운 마음을 담아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인문대학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2012년 『빨치산 구술생애담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부터 다양한 분과 학문 선생님들과 현장 조사를 다니면서 연구 역량을 축적하고 구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습득한 구술사 연구방법론을 문학 연구와 접목해 보고자 했으며, ‘지역·사건·사람’을 핵심 키워드로 사람들의 구술 생애서사를 분석해서 박사논문으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근현대 도시 광주의 형성과 확장’,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형문화재와 기억 담론’, ‘지역의 인물 이야기’를 주제로 연구를 이어갔으며, 현재는 급격히 변화·발전하는 한국의 문화콘텐츠에서 문화서사의 가치와 의미 궁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문대학은 저에게 그리 낯선 공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 대학원과 조교 생활을 했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임교원으로 발령받은 이후 인문대학을 들고 날 때마다 드는 생각과 느낌이 이전과 사뭇 다릅니다. 저는 선배 교수님들이 웃으면서 건네는 축하 인사에서 이면에서 앞으로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좀 더 책임감과 무게감 있게 나아가라는 조언도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행했던 교육과 연구가 일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위한 교육과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는 20대 이후 저의 생애 기억에서 항상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페인트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나무로 만든 인문대 벤치는 잡다하고 번잡한 고민으로 가득한 저의 대학 시절을 함께 했으며, 인문대 앞 매끈하게 서 있는 칠엽수는 연구자로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제 인생을 주조한 주물 틀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에서 받았던 소중한 삶의 경험을 앞으로는 학생과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나뉘가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정 애
독일언어문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2021년 2학기에 임용된 독일언어문학과 최정애입니다. 다채로운 가을 색깔이 넘실대던 캠퍼스 곳곳이 그렇게도 예쁘더니, 낙엽이 지고 마른 가지가 드러나는 지금도 그 고즈넉함에 빠지는 순간들을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주 배경을 가진 독일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제목으로 박사 논문 학위를 받았습니다. 독일 내 이주민들이 어떤 체계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는데, 한 사회 안에서 소수자들의 사회통합 문제, 그들의 정치경제적 연대와 국가의 지원 등에 대해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학교로 오기 전에는 KDI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재직하는 10년 정도 글로벌경제실에서 독일과 유럽 연구, 국제 관계와 한국 정부의 국제 거버넌스 전략과 같은 연구를 맡았습니다. 그동안 국제개발협력, 협동조합, 금융 거버넌스, 포용 성장 등의 연구를 광범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일 내 다양한 사회 문제의 갈등 해결 방안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통일 이후의 갈등, 난민과 이주민 문제, 사회적 시장경제의 발전 방식, 불평등, 문화적 포용의 문제. 그것이 우리나라에 던지는 사유의 지점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독일은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중 제가 생애 처음으로 겪은 독일의 도시 바이로이트의 사람들이 제 가치관을 크게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곳의 방문 학생으로 있으면서, 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장에 얼마나 큰 애착을 두는지 보았습니다. 그 후에 독일의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사는 곳을 자랑스럽게 느끼는 이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연합체로 만들어진 국가의 특성상, 독일 사람들은 전통과 색채를 물려받은 자신이 사는 지역을 아끼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 기억이 아마 저를 제가 태어나 자란 이곳에 다시 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광주가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학교를 빛내는 데 제가 작은 보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과 엮물려 저는 아직 비대면 강의만 해보았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모든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 강의실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공기의 온도가 비대면 강의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대면 강의를 정말 시작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아직 제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 더 부지런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기 동안에는 비대면 강의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러 학생들과 이런저런 면담의 계기를 만들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읽을 때마다, 제가 그들에게 더 좋은 선생님이, 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긴 타지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광주는 제가 기억했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공부하느라 분주했던 학생 때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광주는 광주의 지극히 일부였다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야 깨달아 아쉽기도 하고, 이제라도 깨달아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히 제 주변을 알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향에 돌아온 것 자체로 좋은 부모님과 더 자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부족한 저를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학과와 인문대학의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보내며,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과

국어국문학과

〈국문인의 날〉 개최



국어국문학과(학과장 백승주 교수) 학생들이 주도하는 ‘국문인의 날’이 11월 25일(금)에 인문대 3호관 소강당 및 인문대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학생회와 국어국문학과의 6개 연구회(그림매, 비나리, 삶과마당, 옛길발, 자작나무, 해든누리)는 학과의 발전 및 행사 성료를 기원하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하여 2021학년도 사업 보고 및 각 연구회가 준비한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글날 큰잔치〉 워크숍 개최



한글날 575돌을 기념하기 위해 국어국문학과에서는 〈한글날 큰잔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되었다.

〈한글날 큰잔치〉 워크숍에서는 국어국문학과 전공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골든벨과 ‘한글날’과 국어국문학과 소모임을 제시어로 한 N행시 백일장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현대 사회의 국어 사용 경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한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1회 박지은 작가 창작 작품 공모전

우리대학 국어국문학과를 빛낸 박지은 작가의 업적을 기리고, 서사 창작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어국문학과 학부생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제1회 박지은 작가 창작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직접 소설의 주제를 정해 기획하고 작품을 집필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을 강화하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의 참신성, 구성의 완성도, 문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을 선발하였으며, 시상식은 〈국문인의 날〉에 진행되었다.

취창업 역량 강화 문화기획 프로그램 공모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년 1회 실시하던 국어국문학과 정기학술조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대체하는 문화기획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학부생들이 스스로 기획한 테마를 정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며, 총 7팀(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이 수상하였다. 이 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해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은 현장실무능력 향상 및 추후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고 취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영어영문학과

재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



영어영문학과(학과장 김연민 교수)는 9~11월 중 소속 재학생의 전공 역량 강화 및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영어 글쓰기, 영어 프레젠테이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지도는 영어영문학과 초빙교원 스캇 앨런 핀들리가 맡았으며, 학생 3인이 한 팀을 이루어 소규모로 대면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영어 글쓰기 워크숍은 학술적 글쓰기(Academic Writing), 창작 글쓰기(Creative Writing)로 큰 주제를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소설, 시 등 짓기와 같이 참여 학생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진행되었다.

영어 프레젠테이션 워크숍은 학술적 발표(Academic Presentation)를 큰 주제로, 기존 수업시간에 발표했던 주제나 개인적인 관심분야 등을 10분 이내에 효과적으로 청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표 자세, 명확성, 전달력 등을 연마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은 초빙교원과 영어로 심도 있는 소통을 나누며 전공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영어글쓰기 공모전 및 프레젠테이션 콘테스트 진행

영어영문학과에서는 학기 중 진행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영어 글쓰기 공모전과 영어 프레젠테이션 콘테스트를 진행하여 소속 전공생들에게 긍정적인 긴장감과 동기를 부여하고자 했다. 영어 글쓰기 공모전은 학술적 글쓰기 분야와 창작 글쓰기 분야로 본인의 관심분야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였다. 총 16명의 학생들이 출품하여 공모전에 참여하였고, 분야별 대상 1명씩 총 2명, 우수상 총 3명, 장려상은 4명이 수상하였다. 영어 프레젠테이션 워크숍은 주제를 학술적 분야로 제한하여 10분 내에 본인이 준비한 주제를 영어로 발표하는 것이었으며, 총 9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대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은 3명이 수상하였다.

특히 이번 공모전과 발표회를 통해 학우의 작품과 발표를 접하며 서로에게 좋은 동기부여의 장을 마련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학년도 영문인의 날 개최



영어영문학과에서는 학생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영문인의 날'을 개최하여 코로나19 출현 이후 소원했던 학과 구성원들 간의 교류 시간을 가졌다.

인문대 1호관 김남주기념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자치위원회 회의 연말 활동 보고와 학기 중 실시한 영어 글쓰기 공모전, 영어 프레젠테이션 콘테스트의 시상식이 이루어졌고, 또 영문과 탐색 퀴즈 시간과 시낭송 등의 순서로 다채롭고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영문인의 날'을 통해 영어영문학과 구성원 간 연대감, 정서적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독일언어문학과

독일어 능력(B1) 자격증 취득반 운영

독일언어문학과(학과장 조자경 교수)에서는 유라시아 인문융합연구소(소장 민진영)와 함께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의 후원으로 10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Post-시대의 독일과 유럽'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매회 'Post-메르켈 시대의 독일정치', 'Post-통일 시대의 독일 사회와 문화', 'Post-코로나 시대의 유럽연합의 미래'라는 주제로 현재 급변하고 있는 동시대 독일과 유럽의 사회·정치적 현황을 중점적으로 조명했다. 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Post-독일과 유럽의 경험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다각적으로 탐색했다.

독일어 능력 A1, A2 시험준비반 운영

재학생들의 전공 능력 향상을 위해 독일어 A1·A2 시험준비반을 운영해 수업을 진행했다. 2022년 1월 진행된 본 수업에는 3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불어불문학과

2021학년도 영문인의 날 개최



불어불문학과(학과장 김태훈 교수)에서는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 동안 '2021년 하계 외국어 능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DELF A1, A2, B1/B2로 총 3개의 분반을 운영하여 프랑스어능력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제가 운영되었다. 외국인교수 3인(리오넬 브르노, 제레미 에쎬프, 바네사 레진), 불어불문학과 교수 및 학생들(손봉근 외 52명)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통상적인 수업 현장에서 교육하기 힘든 언어지식과 문화적 능력, 학문적 접근을 심화시키며 전공 적성의 심화와 진로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 따르면 비대면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학생들은 외국인교수들의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평가를 하였다.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불어불문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신장을 위하여 2022학년도 2월 말에 '2021년 동계 외국어 능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



불어불문학과와 프랑스문화·지역학연구소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프랑코포니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프랑코포니 영화 상영 및 프랑코포니 영화 감독과의

대화, 캠퍼스 프랑스의 프랑스 및 아프리카 유학 온라인 특강, 프랑스어·한국어 말하기 대회, 프랑코포니 학술 발표회, 프랑코포니 골든벨, 음식부스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전남대 구성원 및 지역민들에게 프랑코포니 문화를 소개했다.

11월 17일에는 인문대 3호관 앞에서 불어불문학과 학생회가 음식부스를 열어, 빵쇼와 와플을 판매하였다. 18일 13시부터 웅 전정식 감독의 '피부색갈=꿀색'을 상영하였으며, 영화 상영 이후 영화와 이민자의 삶에 관한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16시 30분에는 전남대 학생들을 위한 프랑스 및 아프리카 유학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에서는 프랑스어권의 교육시스템과 대학 소개, 비자 발급 등 유학과 취업의 새로운 무대가 될 수 있는 프랑코포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같은 날 18시 30분에는 전남대 내·외국인 학생, 지역민을 대상으로 프랑스어·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본 행사는 인문대 3호관 소강당 및 인문대 1호관 김남주홀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전남대학교 구성원과 지역민, 외국인들이 모여 언어를 통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프랑스어권의 삶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아프리카 타악 그룹 '아나포' 오지영 대표가 아프리카 리듬과 열정, 아프리카 인식의 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같은 날 18시부터 문화 행사인 '불문인의 밤' 행사가 열렸다.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선배초청 진로·취업 특강 실시

중어중문학과(학과장 서보여 교수)는 지난 11월 첫째주부터 2주간 중문과 졸업생을 초청하여 선배초청 진로·취업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진로·취업특강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무 분야를 직접 투표하여 각 직무별로 재직 중인 선배들을 초청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더욱 높았다.

초청한 동문으로는 김은희(14학번·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경훈(14학번·한국농어촌공사), 박건희(13학번·(주)제이에이치이글로벌)동문으로 각각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생생한 취업 후기와 대학 생활에 대해 들려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선배초청 특강 강사로 나선 김은희 동문은 지역인재 7급 전형 합격자로서 수험 준비 기간 노하우와 학점 관리, 대학생활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를 나눠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끌었다. 또한 강경훈 동문은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학과 선배 초청 특강으로 알게 되었던 선배와의 정보 교류였다"며 "선배 특강이 끝나더라도 취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위해 언제든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강연자인 박건희 동문은 중국어 공부 방법과 다양한 경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목표를 가지고 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알렸다.

진로 설정과 취업에 고민이 많은 재학생들은 선배의 현실적인 충고와 경험담으로 막연했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중어중문학과는 재학생들에게 진로 설정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최근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을 초청하여 선배 초청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당달이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공역량강화 프로그램

〈Chineasy, 중국어 자격증 지원 사업〉 추진

학과 전공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1년도 〈Chineasy, 중국어 자격증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Chineasy'는 'Chinese(중국어)'와 'easy(쉽게)'의 합성어로 중문과 학생들이 중국어에 쉽게 접근하여 흥미를 가지고 학습하도록 돕는 학과 사업이다. 기존 운영해 온 중국어 모둠 활동 지원과 달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별 학습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올해에는 자격증 지원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였다. 자격증 지원 사업은 전공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사례 중 하나로 학생들의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3월부터 12월까지 응시한 시험 중 합격 성적표를 제출시 급수별 지원금 일부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동안 40명이 넘는 학생들의 신청으로 중국어 자격증 지원 사업은 조기 마감되었고 일찍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내년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학과 자격증지원 사업에 처음 참여한 1학년 학생은 "낮은 급수였지만 합격증으로 지원금 신청할 수 있어 뿌듯하고 다음 학기에는 반드시 더 높은 급수를 취득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싶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어일문학과

〈일문인의 날〉 개최



일어일문학과(학과장 김성은 교수)에서는 2021년 11월 18일(목)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만에 '일문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18~19일 이틀간 진행되었다. 첫날에는 타코야끼, 오뎅 판매, 각종 일본문화 체험 등 부스 활동으로 구성 및 진행했으며, 둘째날(19일)은 레크리에이션, 보물 찾기 등 학부생 자치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사학과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선배 초청 특강 개최

사학과(학과장 이성원 교수) 〈진로설계와 자기이해〉는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설되어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수업이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접어들면서 기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교과목을 대면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사학과 선배 초청 특강을 3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사학과 박사 졸업생(홍창우, 자율전공학부), 학예연구사(김화윤, 구례군청), 중등교사(김현주, 남양주 판곡중학교)가 신입생들에게 사학과 졸업 후의 다양한 진로를 제시하였고, 신입생들에게 학과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학제전〉 개최

사학과는 2019년 이후, 처음 대면 행사로 11월 26일에 〈사학제전〉을 개최하였다.

〈사학제전〉은 사학과 4개 연구회(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덩빙주조)가 1년 동안 진행한 학습 성과를 논문 형식으로 발표하는 행사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사학제전〉이 재개됨에 따라, 첫 대면 행사를 경험하게 된 1, 2학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사학제전〉을 통해 사학과 구성원들의 만남의 장을 형성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겪어왔던 소통과 교류의 부재를 해소할 수 있었다.

철학과

2021학년도 2학기 ‘청년연수’ 프로그램 운영



철학과(학과장 정미라 교수)는 10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학생들에게 인문학 사업 인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청년연수는 (사)인문도시연구원의 시민자유대학 시민인문학 강좌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했으며, 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청년연수를 통해 인문학 강의와 인문학 사업의 기획 및 운영 실재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통해 폭넓은 학습의 기회를 경험했다.

‘해외 학술탐구 기행’ 운영

철학과는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온라인으로 떠나는〉 해외 학술탐구 기행〉을 진행했다. 이번 해외 학술탐구 기행은 해외 석학 온라인 초청 강연과 철학과 오월민주세미나의 국제화 2개로 나뉘어 진행됐다.

해외 석학 온라인 초청 강연은 김성문 교수(홍콩성시대학교 공공정책학과)를 초청, 〈평범한 군주의 문제: 순자의 예와 한비자의 법이 갈린 지점〉이란 주제로 11월 30일 진행됐으며, 35명이 참여했다.

또한 학과는 2006년부터 2019년 동안 진행된 학부생 학술세미나 “오월민주세미나”의 국제화를 위해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영어요약 작업을 진행해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학술세미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철학과 창업 준비팀

‘철학 굿잡(Goods+잡지) 팝업 스토어’ 개최



철학과 창업 준비팀이 상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해 12월 20일 인문대 벤치에서 ‘철학 굿잡(Goods+잡지) 팝업 스토어’ 행사를 개최했다.

철학과는 전남대 혁신선도학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창업 준비모임 ‘필인굿즈’팀(철학자의 명언, 자화상을 담은 상품)과, ‘우주먼지’팀(광주 지역 기반 대학생들의 인문학적 고민을 담은 철학잡지)을 운영해왔다.

이번 행사에서 ‘필인굿즈’는 ‘사르트르 자화상’이 담긴 마우스패드, ‘철학자 명언’이 담긴 문구세트, ‘칸트 자화상’이 담긴 홈 카페 세트 등 상품 5종을 판매했고, ‘우주먼지’팀은 철학잡지 『한대 0.1호 ‘편지’』, 『한대 1호 ‘공간-장소’』를 판매, 『한대 2호 ‘철학과 나와서 뭐하세요’』는 예약 판매했다.

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소

대원사 인도박물관 건립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아시아문화연구소(소장 김용의,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대원사에 인도박물관 건립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대원사(주지 석현장 스님), 강항문화교류연구원(이사장 김현태 명예교수)과 공동으로 12월 11일 '인도박물관 건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보성 대원사에서 온라인(zoom)을 병행해 진행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이병훈 국회의원과 인도대사관 대사로도 참석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최현 전남대 연구석좌교수의 '문화교류와 박물관'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이어, '인도문화속 다양성이라는 지혜'(이재숙 한국외국어대 교수), '보성군 문화벨트와 인도박물관의 역할'(이남섭 서재필 기념사업회 이사)이 발표됐다.

수은 강향과 한일문화교류 국제학술대회 개최



11월 20일 김남주기념홀에서 일본문화연구센터(센터장 정승운, 일어일문학과 교수) 주관, 아시아문화연구소(소장 김용의, 일어일문학과 교수)와 강항문화교류연구원(이사장 김현태, 물리교육과 명예교수) 주최,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 후원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수은 강향과 한일문화교류>라는 주제로 20~21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었다. 첫날에는 한국, 일본, 베트남의 국내외 학자들이 '수은 강향의 학문적 업적 및 사상'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했으며, 둘째 날에는 일본 도쿄가쿠게이대학의 이시이 마사미(石井正己)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의 신진연구자 10여 명이 참가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인문학연구소

『용봉인문논총』 제59집 발간

인문학연구소(소장 신해진,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등재지인 『용봉인문논총』을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10월 말에 『용봉인문논총』 59집을 발간하였다. 더불어 인문학연구소는 2022년 2월 16일(수)에 '지역 서사와 공동체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일본문화연구센터

추계연합 국제학술대회 개최

10월 30일 김남주기념홀에서 동아시아일본학회(회장 김용의, 일어일문학과 교수), 동북아시아문화학회(회장 김창경, 부경대학교 교수) 공동주최, 일어일문학과(학과장 김성은 교수), 일본문화연구센터, 아시아문화연구소 주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후원으로 2021년 추계연합 국제학술대회(온·오프라인 동시)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리쓰메이칸대학의 아사쿠라 도시오(朝倉敏野夫)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의 일본 연구자 100여 명이 일본어, 일본문학, 일본사회, 일본문화, 일본역사 등 다양한 주제에 맞춰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철학연구교육센터

철학연구교육센터-순창군 MOU 체결



철학연구교육센터(센터장 양순자, 철학과 교수) 근대호남유학연구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팀은 10월 29일 전북 순창군과 근대 호남유학 연구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순창군 복흥면 출신으로 조선 후기 성리학계의 거두인 노사 기정진 선생을 비롯한 순창군의 다양한 유학 관련 역사·문화 자원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근대 호남유학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존 순창군이 보관하던 기정진 선생과 관련된 기초자료, 문집, 저술 등에 대해 체계적 정리와 번역 등이 전문적으로 이뤄졌다.

호남학당 열린고전강좌 3기 공동주관

철학연구교육센터는 전남대학교 호남학과, 호남학연구원과 10월 22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16주간 진행되는 호남학당 열린고전강좌 3기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기수 강좌의 주제는 ‘논어맹자정독3:감(感)과 응(應)을 새기다’로 대면수업과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근대호남유학연구 총서 및 저·역서 발간



철학연구교육센터 근대호남유학연구단에서 노사학파의 사상을 주제로 두 권의 총서와 두 권의 저·역서를 발간했다.

『노사 기정진의 철학 사상』은 근대호남유학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노사 선생 성리학의 철학적 탐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을 가려 뽑고, 노사학파의 특징과 위상 그리고 지역에서의 노사학 계승과 후학 양성을 엿볼 수 있는 논문을 추가하였다.

『노사학파 문인들의 삶과 사유』는 성리학에 대한 이론적 탐구는 물론 조선 말기 국운이 기우는 상황에서 호남 의병 운동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노사학파 문인들의 진정한 유학자로서의 삶의 사표(師表)를 보여준다. 동시에 근대 사회에 유학의 쇠락을 보여주는 지표(指標)이기도 하다. 유학과 삶의 관계를 고민하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노사학파는 좋은 지적 탐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외필논쟁(猥筆論爭) 자료집1』은 ‘근대호남유학 저·역서’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이다. 기정진의 만년 저술인 『외필(猥筆)』은 ‘외필논쟁(猥筆論爭)’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학술 논쟁이 20세기 초·중반까지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단은 대략적인 추정을 통해 1878년에서 194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외필논쟁과 관련된 저술과 문헌들이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자료를 종합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문헌과 분량을 검토한 결과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먼저 1878년부터 1903년 사이에 생산된 외필논쟁 자료 101편을 모아서 해제와 함께 역주 번역했다.

『노사학파 문집해제1』은 『외필논쟁자료집1』에 뒤이어 발간하는 것으로 노사학파의 주요 문집을 정리하려는 작업의 첫 번째에 성과에 해당한다. 여기서 노사학파의 주요 문집 50종을 저자 소개, 문집의 구성과 내용, 문집 목차의 순서에 따라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한국어문학연구소

『어문논총』 KCI 등재지 선정 및 국내·국제 학술대회 공동개최

한국어문학연구소(소장 장일구,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발행하는 학술지 『어문논총』이 2021년도 학술지 평가 결과에 따라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어문논총』은 2019년에 등재후보지에 선정되었고 2021년 ‘계속평가’를 통해 곧바로 등재지로 승격되었다. 『어문논총』은 2월말과 8월말, 연 2회 발행되고 있고 현재 39호까지 발행되었다.

한국어문학연구소는 홈페이지 내에 자체투고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어문논총』에 수록된 논문들은 홈페이지 내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연구소는 12월 10일, 현대문학이론학회(회장 장일구,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전국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문학과 기호학’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문학장을 중심으로 기호학에 관한 사적(史的) 접근 및 기호학에 관한 정치하고도 새로운 이해를 보여주었다.

호남학연구원

인문마을 프로젝트

호남학연구원(원장 이성원, 철학과 교수)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1월부터 2021~22년도 인문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 활동을 지원하여 인문학적 관점에서 일상적 삶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성찰과 실천을 촉진하고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지향하고자 기획되었다.

비아동 까망인문마을에서는 <누구나 배우의 삶을 산다>를 주제로 삼아 연극으로서의 삶의 관점을 이해하며 매일 매 순간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는 자신의 일상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엄마, 부인, 딸, 친구, 직장인 등 주민들이 자신의 배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가족, 친구, 직장에서의 갈등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충돌을 서로 이야기 나누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와 자기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일상 속 아름다운 연극 무대의 구성 요건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한다.

신창동 로템인문마을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의 미래>를 주제로 마을활동가 대담회를 진행한다. 그동안 광주에서 추진된 마을 사업에 참여해 온 마을활동가들이 마을 공동체에서 경험한 고충과 보람, 기대와 요구 사항 등에 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마을 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대안을 모색한다.

월곡2동 고려인인문마을에서는 <고려인의 중층적 심상지도>를 주제로 월곡2동과 그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고려인들과 인터뷰 시간을 가지며 경계와 영역을 넘나들며 형성된 고려인의 정체성을 역사적, 민족적, 공간적, 문화적 지도로 접근해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복수적 장소에 기반한 고려인의 자기 서사에 귀 기울이며 장소감과 정체성의 연관관계를 살펴본다.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지역어문학 기반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제3회 공공실천클래스 강연 개최



지역어문학 기반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단장 표인주 교수)에서는 10월 3일 제3회 공공실천클래스 강연을 개최하였다. 사회대기 거리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구 교류과에 재직 중인 윤지수 주무관이 ACC 사업 안내 및 어문학 관련 협업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지원대학원생들과 질의 응답하며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였다.

‘제1회 인문학 학문후속세대 포스터 큐레이션 한마당’ 개최

전남대학교 HK+가족커뮤니티 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 4단계 BK21 영어권 문화지역 큐레이터 양성 교육연구단, 4단계 BK21 지역어문학 기반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4단계 BK21 철학큐레이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단이 공동주최한 ‘제1회 인문학 학문후속세대 포스터 큐레이션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10월 29일 진행된 행사는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 홀 옆 김남주 뜰에서 진행되었으며 두 시간에 걸쳐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어 연구자들 간의 활발한 학술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교육연구단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지원대학원생 강영란, 응웬티탄타오, 남귀옥, 노상인, 미즈카이 유카리, 안진, 염승연, 전두영, 진건화 연구자가 발표했다.

제2회 창의융합클래스 개최

교육연구단에서는 총 4차례에 걸쳐 제2회 창의융합클래스를 개최하였다. ‘인문데이터의 분석과 해석’이라는 큰 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바로 교수의 강연과 실제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습이 11월 4일, 11월 11일, 11월 18일, 11월 25일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실생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제4·5회 전문심화클래스 강연 개최

교육연구단에서는 11월 12일 제4회 전문심화클래스 강연을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중앙대학교 이찬규 교수가 ‘인공지능, 국어국문학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두 시간에 걸쳐 강연 및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11월 26일에는 제5회 전문심화클래스 강연을 개최하였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한양대학교 이도흠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어문학 연구의 방법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구자들과 정서적 학술적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전남대 KOR컨소시엄-산동대학협작연구중심 업무협약식 체결

전남대 KOR컨소시엄은 지난 9월 16일 산동대학협작연구중심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온라인 회의를 통해 진행된 행사에는 표인주 교육연구단장, 한국어문학연구 장일구 소장, 우림걸 중일한협력연구센터장을 비롯해 총 2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간 상호 교류와 학술지원 및 한국어문학 연구 성과 확산 및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ACC 아시아문화연구 차세대연구자 라운드 테이블’



11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남대학교 KOR컨소시엄이 공동 주최하는 ‘2021 ACC 아시아문화연구 차세대연구자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되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지원 대학원생 손호원 박사과정 연구자가 ‘한중 해신설화비교연구-한국 개양할머니설화와 중국 마조설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고, 전남대 국문과 박사과정 헤본디안 크리스티나 연구자가 ‘한국인의 우리성과 공동체의식의 확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26일 ‘아시아의 현실과 아시아문화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한국어교육전공 박사과정 이유미 연구자가 ‘고려인 학령기 아동의 한국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요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영어영문학과 4단계 BK21 영어권 문화기억 큐레이터 양성 교육연구단

글로벌 공감 블록세미나

영어권 문화기억 큐레이터 양성 교육연구단(단장 김연민 교수)은 전남대학교 HK+인문학연구원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 4회에 걸쳐 블록세미나를 진행했다. 블록세미나를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은 인문큐레이션 이해를 증진시키고 큐레이팅 실무를 간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 9월 23일 김태형(세계인권도시포럼 사무국장)
- 10월 7일 김허경(미술평론가, 전시기획가)
- 10월 14일 김재희(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 11월 11일 김진우(익선다다 CMO)

학술교류 포스터 발표회



교육연구단은 전남대학교 HK+인문학연구원 지역인문학센터, 국어국문학과 BK21 교육연구단, 철학과 BK21 교육연구단과 공동으로 제1회 인문학 학문후속세대 포스터-큐레이션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10월 29일 김남주 뜰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대학원생들 간 학문적 교류를 증진하고 연구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전문가(리처드 커니 교수) 초청 블록세미나
Touch and Memory

교육연구단은 2022년 1월 21일, 26일, 27일 3일간 미국 보스턴 칼리지(Boston College) 철학과 리처드 커니(Richard Kearney) 교수를 초청해 블록세미나를 진행했다.

‘문화기억’을 해외전문가의 시각으로 접근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몸-기억’ 감수성의 철학적 배경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인권도시포럼 학술대회

교육연구단은 글로벌 공동체 형성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광주 국제교류센터와 협력하여 세계인권도시포럼-인권논문세션을 개최하였다. 2021년 10월 6일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약 24개국 98명이 참석하였다.

임지현 교수 초청 블록 세미나
Global Memory Studies

교육연구단은 2022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강대학교 사학과 임지현 교수를 초청하여 블록세미나를 진행했다. 트랜스내셔널 기억 문화 전문가 임지현 교수의 강연을 통해, ‘Global Memory Culture’와 ‘Global Memory Activism’의 측면에서 ‘문화기억’을 탐색하였다.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

교육연구단은 국제 유관기관과의 학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한국영어영문학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21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 12개국 319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6명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기억-커뮤니티 문화제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들의 사회 문제 해결 능력 증진과 문화기억 큐레이팅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10월 28일 기억-커뮤니티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제16회 인문주간에 포함된 본 행사는 대학교 구성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기억-커뮤니티 문화제는 지역(local) 공동체와 세계(global) 시민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참여대학원생들이 기획하고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세션1 미안마의 봄
- 세션2 영화 <김군> 강상우 감독 초청 강연
- 세션3 강상우 감독과의 토크 콘서트
- 세션4 국가폭력에 대한 초국가적 기억과 공감:5·18과 우즈베키스탄

국제 대학원생 콜로키움

교육연구단은 2022년 1월 28일 제1회 국제 대학원생 콜로키움(1st International Graduate Colloquium on Cultural Memory Studies)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대 영어영문학과 BK21교육연구단이 주최하고 미국 켄트주립대학교 영문학과 켄트주립대학교 평화와 분쟁학부 그리고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BK21교육연구단팀의 공동 참여로 이루어졌다.

특히 브이스토리(V-Story)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신진연구자들이 문화기억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생

‘다시’
인문대학 학생회



안녕하십니까, 제34대 ‘다시’ 인문대학 학생회장 이영주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설레면서도, 조심스럽고 망설여집니다. 어느덧 2학년이 되어 후배들을 만나는 것이 기대되면서도, 혹여 현 상황이 더 심해져 후배들의 새내기 시절 또한 별다른 추억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에 오기 전, 다른 학교에서 먼저 대학생활을 지냈습니다. 쑥스럽지만 당시에는 젊음의 소중함을 몰라, 새내기 시절을 하릴없이 흘러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렇게 흘러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졌고, 다시 한 번 새로운 대학생활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낸 저는 지금 우리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대와 각오를 안고 맞이하게 된 시작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멈춰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한 1학년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저는 입학 후 한 번도 밟지 못했던 광주 땅을 밟았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풍경이 생생합니다. 교문을 지나자 양쪽으로 길게 줄 지어진 나무들과 교과서에서 보았던 역사의 흔적들, 캠퍼스에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 그날 보았던 학

교의 모습은 저를 가슴 벅차게, 움직이게, 도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내일 총학생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 들어간 그곳에서,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우들 곁에서 그들을 위해 일 하는 학생회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학우분들이 학생회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그 이상의 도움을 드리고자 인문대학 학생회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하고 싶은 것을 전부 이루기엔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게 느껴집니다. ‘다시’ 인문대학 학생회는 제가 다시 새내기로 돌아간 것처럼, 대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멈춰버린 2년이란 시간에 지친 인문대학 학우 여러분, 이제는 저희가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단절되고 멀어진 사이를 이어붙이며, 학우분들이 자신만의 목표와 보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일상의 순간 구석구석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다가올 새학기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애 넘치는 공동체,
세계를 지향하는 지성, 인문대학

소식지를 통해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인문대 학장실(062-530-3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2학기 인문대 취업교과목 <생애와 직업탐색> 운영

인문대학은 취업교과목 <생애와 직업탐색>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취업준비를 교과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과목은 2·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소개서 작성법 스킬과 같은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클래스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총 76명 학생이 수강했다.

교과 내용은 채용동향, 직무기업 분석, 자기소개서, NCS 및 필기전형, 면접 대비 스킬, 취업계획서, 취업선배 멘토링 등 취업의 서류전형에서부터 마지막 면접까지를 포함한다. 본 교과목의 운영 전반은 인문대 취업지원실(인2-113)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2학기 취업/창업/문화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인문대학은 인문학 학생들의 진로방향에 맞는 동아리 팀을 구성하여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인문학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더불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팀을 발굴코자 이 사업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0월 중에 참가학생을 모집하여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였고 총 14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체 채용전형을 준비하는 취업팀과 문화콘텐츠 유관 스터디 활동하는 문화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총 8차시 이상의 모임보고서를 제출한 후 활동비(30만원/1팀)를 총 2회에 걸쳐 지원받는다.

본 프로그램은 12월말까지 운영하고 2022년 1월 중 최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우수팀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2학기 인문 고전 콘텐츠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운영

인문대학은 인문학 학생들의 전공분야인 인문학 고전에 대한 학부생의 전공역량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영상콘텐츠 등의 기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융복합적인 인문학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10월 중에 참가학생을 모집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였고 총 5개팀이 활동하고 있다.

활동팀의 주요 내용은 인문학 고전 스터디, 영상콘텐츠, 시나리오 제작 등이다. 팀별 총 8차시 이상의 모임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비(30만원/1팀)는 총 2회로 나눠 정산하여 지원한다.

본 사업은 12월말까지 운영하고 팀별 제출된 성과물을 토대로 우수팀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 및 문의사항은 인문대 취업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2학기 인문대 선배초청 취업멘토링 실시

인문대학은 취업한 선배가 재학생에게 취업멘토 역할을 하고 생생한 최신 취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취업멘토링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금번 2학기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과 취업교과목 특강을 연계하여 기획하였다.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총 4회에 걸쳐, IBK기업은행 행원(나병현), 전남대병원 행정직(이찬미), 한국콘텐츠진흥원(공소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김지연) 동문을 멘토로 초청하여 현직 회사와 업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재학생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 멘토링에는 총 14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보였고, 현직자 동문의 대학생활과 구직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해 가감없는 솔직한 경험과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멘토링에 참석한 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성공한 선배의 경험과 조언을 통해 용기를 얻었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직무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밝혔다.

2021 인문대 학과 및 전공 홍보 영상 공모전 개최

인문대학은 학생들이 소속 학과 및 전공의 홍보 영상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학과 및 전공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자 학과 홍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내용은 학과 및 전공의 역사, 인물, 지식, 커리큘럼, 학생활동, 진로 및 취업, 대학원 등 소속 학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점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응모기간은 하계방학부터 9월 6일까지이다.

응모 결과 총 6개팀 19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최우수상(불어불문학과 오혜진 외 5명)을 비롯하여 총 4편의 영상작품을 시상하였다.

수상작은 인문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탑재하였으며, 이후 중·고교생의 학과 탐방,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인문대학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21 인문대 취업 및 인턴십 수기 공모전 개최

인문대학은 취업합격자 및 인턴십 수기 공모를 통해 우수 학생의 노하우와 최근 취업 정보를 수집하여 인문대 취업준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2021 취업 및 인턴십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2022년 1월 7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생 및 최근 졸업자까지 모두 응모 가능하다.

인턴십의 경우 대학생활 및 인턴십을 경험한 체험을 위주로 작성하고, 취업 수기의 경우 구직경험 및 노하우를 위주로 작성하면 된다. 공모 후 최우수 및 우수작을 시상하고 수상작 등 자료는 책자로 만들어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문대 취업지원실에 비치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인문대 취업서포터즈 ‘인사이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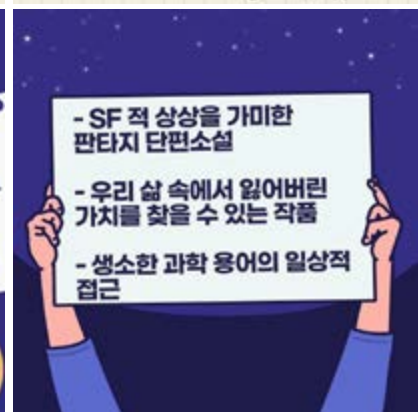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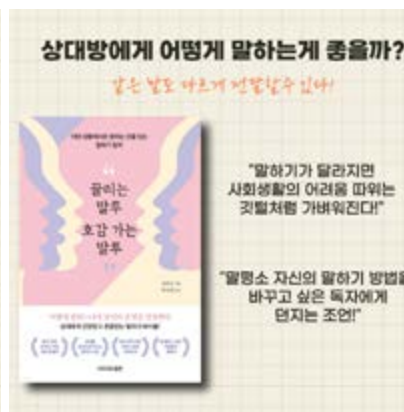
인문대학은 융합인재교육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취업서포터즈 ‘인사이다’를 운영하고 있다. ‘인사이다’는 사이다처럼 인문대 학생들의 취업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년 3월 학과별 1명씩 총 8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11월까지 운영하였다. 선발된 서포터즈 팀원들은 인사이다 온라인 계정을 통해 취업정보를 꾸준히 업로드하고, 중간고사 기간 간식 응원 사업 등 대면 행사도 기획하여 추진하였다.

인사이다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는 취업지원실, 교육혁신본부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고, 그 외에도 전남대 ‘전대에서52’ 선정도서를 참고한 ‘도서 추천’ 카드뉴스, 취업정보 월간지 등 인문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자세한 정보는 인스타그램 아이디 ‘insida_supporter’를 검색하거나 팔로우를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2년도 취업서포터즈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인문대 취업지원실(인2-113)로 문의하기 바란다.

취업지원실 취업서포터즈 카드뉴스



신간도서

**스필버그의 말** 이수원 옮김 마음산책, 2022. 1

마음산책 '말 시리즈'의 열여덟 번째 책으로 선보이는 『스필버그의 말』은, 감독으로서의 면모뿐 아니라 그동안 소개된 적 없던 그의 개인적 삶까지 여실히 담았다. 1974년부터 2021년까지 48년 동안의 인터뷰 스물한 편을 소개하는 이번 책에는 〈슈가랜드 특급〉 같은 초기 영화뿐 아니라 〈조스〉 〈쉴더리 리스트〉 〈캐치 미 이프 유 캔〉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들

의 상세한 제작기가 수록되었다.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통과해 그의 인터뷰를 따라 읽다 보면 열정 가득한 신인의 모습은 물론, 처음 영화를 만들었던 열다섯 살의 기억,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몰래 잠입했던 일화처럼 지금은 거장이 된 감독의 소박한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재미와 가치를 더하고 있는 점은, 긴 세월 동안 꾸준히 영화를 만들어온 감독의 가치관과 생각이 점차 변화하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만후 황귀성 난중기사** 신해진 역주 보고사, 2021. 11.

이 책은 만후 황귀성이 임진왜란 당시 도체찰사 류성룡의 막하에 들어가 7년간 좌막으로서 겪었던 일을 기사체 형식으로 기록한 〈난중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난중기사〉는 《만후당문집》 권1의 '기'에 수록되어 있다. 이 문집은 석인본으로 2권 1책으로 되어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난중기사〉에 대해 “1592년(선조 25)에 스승인 유성룡을 방문하기 위하여 서울에 가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체찰사가 된 유성룡의 막하에 들어가 7년간 있을 때 쓴 것이다. 그가 유성룡

을 따라 선조를 호종한 일과 유성룡이 안주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진무하고 군량을 준비하다가 명나라 이여송과 함께 평양을 수복한 일 등 임진왜란 당시의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류성룡의 《징비록》과 닮은 점이 많아 위작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이 책의 첫머리에는 황귀성 〈난중기사〉의 위작 시비와 관련된 글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여 실어두었다. 〈난중기사〉의 번역과 주석, 위작 시비와 관련된 글을 독자와 연구자들이 더불어 읽어보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짚어보기를 바란다.

**월파 류팽로 임진창의일기** 신해진 역주 보고사, 2021. 11.

이 책은 월파 류팽로가 임진왜란 당시 전라남도 옥과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남원에서 창익한 이종 4촌형 양대박과 더불어 고경명의 막하에 들어가 곤양병으로서 도성을 수복하고자 북상하다가 금산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일기를 번역하였다. 월파 류팽로는 실천적

지성인으로서 국난을 맞아 호남의 연합의병 봉기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의병봉기를 제창한 점에서 그의 국량을 엿볼 수 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이들과는 달리 구국의 의병을 일으킨 류팽로의 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일기가 수많은 독자에게 알려지기를 희망한다.

**중국 인문학 읽기의 즐거움** 장춘석 신아사, 2021.10.

학문의 전공이 세분화되고 공고히 된 큰 원인은 서양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 인문학도 기계처럼 나누어서 각 분야를 깊이 하고, 나중에 전체를 합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문학은 기계론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할 수 없다.

그것은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았으니, 인간의 삶 자체가 어떤 부분 부분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누면 올바른 인문학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학문의 선진국에서는 현대에 들어 융합적인 학문을 강조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공자와 소크라테스에게 어디 전공이란 게 있었겠는가.

본서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문학·역사·철학·언어·예술을 융합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한눈에 보는 서양미술** 김홍섭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0.

이 책은 서양미술을 단순히 보고 즐기는 데에서 나아가 인문학적 입장에서 작품을 자세히 읽고 이해하는 방식을 시도한다. 작품을 이해하는 유일한 해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해석이 모이면서 합당한 해석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작품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기존의 해석을 바탕으로 그림을 읽고 이해하는 또 하나의 진전된 해석을 제공한다. 서양미술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자신만의 해석을 위한 인문학적 해석의 한 예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양미술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미술을 통해 보다 폭넓은 지적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검간 임진일기 신해진 역주 보고서, 2021. 8.

기존의 역주서와 달리 역사적인 인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인물백과식 조사에서 벗어나 인적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연결되는 학연, 지연, 훈맥 등을 낱낱이 확인하여 밝히는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족보, 읍지, 문중 소장 잡록 등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한문 문헌 자료를 총체적으로 입수하고 조사하여 생몰연대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주석으로 덧붙여놓았다.

또한 지명의 경우에는 주체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시·도·군·면 단위

의 행정구역은 물론 향토지명연구가의 협조를 구해 자연부락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하여 특정화하였다. 본 역주서는 자연부락 지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향토지명연구가 및 지역문화원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를 구하고 기록 문헌에 대한 다층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자연부락 지명을 구체적으로 고증해냈다. 이는 역주서의 완성도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지역사 및 지명사 분야에서도 한 획을 긋는 작업으로 학계에 큰 자극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검간 임진일기 자료집성 신해진 편 보고서, 2021. 8.

이 책은 검간 친필 초서에서 시작하여 초서정서본, 판각정서본, 목판본으로 이어지는 현전 자료를 총체적으로 집대성한 것이다. 전통시대의 문헌은 문집으로 판각되어 간행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저자가 생전에 남긴 생생한 문헌자료는 후손이나 문중, 제자에 의해 산삭과 변경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최초의 문헌은 후손과 가문의 시각에서 지속적인 변주가 이

루어지면서 가공된 문헌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접하는 문집 자료는 저자가 남긴 원자료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조정 of 《임진일기》 또한 문헌 변주의 과정을 벗어날 수 없었다. 현전하는 문집 소재 자료는 조정이 기록한 초서자료에서 초서를 정서한 초서정서본의 과정을 거친 후 문집으로 판각하기 위해 정서한 판각정서본을 거쳐 목판본으로 최종 간행되었다.



너의 경우 이미란 예서, 2021. 8.

“독자들은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왠지 자기 자신도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된다. 소설 속 안처럼, ‘너’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나’처럼 두루마리 치유법을 실행해보고 싶은 욕망이 서서히 커지는 것을 느낀다. 이 세상 누구라도 가슴 한켠에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2인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미란 작가의 소설 쓰기가 결국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싶다.

끊임없는 독자와의 대화, 이 책은 아직도 많은 독자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이인칭 단편소설을 수록한 창작집이다. 이 책에는 소설의 주인공을 ‘너/

당신’이라고 부르며 서사의 대상으로 삼는 단편소설 5편(〈당신?〉, 〈너의 경우〉, 〈일박 이일〉, 〈진실〉, 〈거짓말〉)이 실려 있다. 이 소설들에서 사용된 이인칭 호칭은 독특한 서사적 효과를 발생시키며 각 작품의 주제 구현에 기여한다.

독자를 수화자처럼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는 이인칭 소설은 한편으로는 작중인물에 관한 보고적 진술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를 향한 직접적인 말 건네기의 서사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시제를 활용한 서술이 많아서 인물의 생생한 감정과 활동의 순간으로 독자를 초대하며 이인칭 소설의 향취와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청강 조수성 병자거의일기 신해진 역주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1.3.

이 책은 청강 조수성이 병자호란 당시 전라남도 화순에서 의병을 일으켜 진군하여 청주에 이르렀다가 적과 화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일기를 번역하였다. 이 일기를 16권 5책으로 1896년에 간행된 《조씨오현집》 가운데 세 번째 책인 《청강유집》의 권3에 수록되어 있다.

이 일기는 조수성이 1636년 12월 25일 인조가 반포한 교문을 보고 거의격문을 이웃의 여러 고을로 전하는 것에서부터, 의병을 일으켜 1637년 2월 4일 청주에 이르렀다가 인조가 남한산성에 나와 청나라 태종에게 굴복하고 강화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귀향하기까지 40일간의 기록인데, 청강의 아들 조옥이 서기로서 종군하며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뒤에 후손들이 사적을 더듬어 보완한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 민속문화의 전통과 현장 김용의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2.

이 책은 일본의 민속문화에 관해서 모두 3부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제1부는 일본 설화에 나타난 가족 관계와 관음신앙에 관한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부는 주로 오키나와 지역의 설화에 보이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해서 다룬 논문으로 엮었습니다. 제3부는 일본의 마쓰리(祭り) 탐방에 관한 글입니다.

민족시인 김남주
그의 시와 정신을 기리는 공간

김남주 기념홀

개관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주말: 오전 10시 ~ 오후 5시

(5월 한정 개관)

특별개관

신청에 의함

행사 시에는 기념공간 관람이 제한됨



김남주기념홀 운영위원회